



## 구속영장 직접 보니…“혐의자 특정 말라” 국방장관 지시 있었다

부사령관이李장관 지시사항 전달…‘지시한 적 없다’는李장관 발언과 달라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해병대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았다는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중앙 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사전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체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직후 ‘해병대부사령관은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보류’ 등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군 검찰 출석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해병대사령부 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참모장, 공보정훈 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영장청구서 7쪽에는 ‘부사령관이 장관님 지시사항은 ①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 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② 수사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회의 참석자들

에게 설명했다’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기술됐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문서로 된 명시적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장을 반박하기 위한 기술로 보인다.

다만,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회의 참석자에게 전달했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를 스피커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함께 들었다는 박 전 단장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다. 영장청구서 23쪽에는 ‘피의자로부터 법무관리관과의 8월 1일 대화를 함께 청취한 (공란)과 (공란)은 법무관리관이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혐의사실과 혐의 내용을 빼고 조사기록만 넘기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범죄의 인자라고 부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결국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명백하고도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수사방해, 수사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병호 기자

의 통화를 함께 들었으며, 당시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혐의사실과 혐의 내용을 빼고 조사기록만 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이를 토대로 영장청구서에 “법무관리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또 “혐의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말했다는 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은 김정민 변호사는 6일 군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군검사는 ‘혐의사실,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하는 지시가 적법한 수사지침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범죄의 인자라고 부른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결국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는 명백하고도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수사방해, 수사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병호 기자



감사원 앞에서 팻말 시위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59)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에 대해 권의위를 특별 감사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행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의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 그가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의위 국장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2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뒤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원장,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황순길 기자

### 與,野의원 ‘탄핵’ 언급에 “심각한 대선불복·내란선동행위”

#### “민주당 조작과 선동, 그 끝에는 늘 ‘탄핵’ 있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언급을 두고 6일 “심각한 대선 불복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대로 가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윤재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

불복이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 의원의 지속적인 탄핵 발언은 합헌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내란선동행위”라고 썼다.

최형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야당이 늘 그래왔지만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성급하게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했던 것은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정말 심각한 선거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설의 원은 탄핵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베림받는 처지는 면하지 않겠느냐”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희대의 선거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러고 대선에 폐배한 게 분한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조작과 선동, 그 끝에는 늘 ‘탄핵’이 있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박수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6일 대전 본사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수도 요금 동결을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물가 안정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2년 동안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공사는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경제 여건을 분석하고 내부 투자계획을 점검한 뒤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도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지역의 용수 수요에 즉각 대응해 매출액을 연간 262억원가량 늘리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시설 가동

전력 요금과 약품비 등 생산 원가를 연간 165억원가량 절감할 계획이다.

공사가 생산하는 광역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에 공급되는 만큼 지자체의 수도 요금 인상 요인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대 사장은 “최근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돗물 생산 원가가 연간 370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요금 동결 여력을 마련했다”며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 활동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액의 30% 상당 담례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 시점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축협
- \*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통합위 “사회적 고립자” 280만명 추정…전국민 실태조사 필요”

고립·은둔자 일상 복귀 정책폐기지 발표…김한길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국민 실태 조사’를 6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라는 정책 제안 폐기지를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간접 추정 결과를 소개했다.

‘고립 인구’는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 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



려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자의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가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

고 국민통합위는 밝혔다.

또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 아동·청소년기 고립·은둔자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사회적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20세 이상 대상 조사는 통계청에서 보

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의 사회조사를 활

용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단계별 지원 ▲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 노년기 문화·여가

활동 환경 조성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생애주기와 관계 없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주민자치단체 및 청소년 시설,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폐교 등을 활용한 ‘소규모 회복 모임’ 장소 등도 고립·은둔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통합위는 “고립과 은둔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및 성과 관리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

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 정희수 기자



답변하는 박민식 정관

박민식 “백선엽 친일? ‘홍남시 계장’

文부친은 친일파 아니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의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

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백선엽이 스물몇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거의 나이가 똑같다.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며 “흥남시 농

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

관학교 소위는 친일파나. 어떤 근거로 그

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 학경도 흥남시에서 태어난 후 흥남시청 농업과장

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

하자 흥남철수작전 때 남한으로 피난했다.

백선엽 장군은 1920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해 일제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에도 격론이 벌어졌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장관님께서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논쟁을 자꾸 만드는 게 장관님은 즐겁고 좋으나”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윤현중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관직을 했는데 우리가 친일이라고 한 번이라도 공격한 적 있느냐”며 “박 장관은 백선엽이 친일이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이냐고 되물은 것”이라고 응호했다.

/ 송진영 기자

## 통일장관 특보에 ‘첫 탈북 외교관’

### 고영환 前안보전략연 부원장

북한 외교관 출신 첫 탈북민인 고영환(70)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에 임명됐다.

김영호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환 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장관은 위촉식에서 “고 특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전제주의 체제에서 모두 살아오신 분으로 이런 경험에 비춰볼 때 그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통일부의 정책능력에 고 특보의 전문성이 기미되면 통일부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양 출생인 고 특보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불어 통역을 맡았으며 콩고 주재 북한 대사관 서기관과 외무성 아프리카국과장 등을 역임한 뒤 1991년 탈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엔 신설된 통일장관 특보는 탈북민과 국제협력, 북한정보 분석 등에 관해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강연 등 외부 활동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1년으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고 특보는 위촉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성공해 남북관계가 호혜적이고 평등하고 대등하게 이뤄지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통일부가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 박민수 기자

## 與, 강서구청장 공천 결정에 “충분히 해볼 만”…일각 “명분없어”

김태우 재공천 여부 놓고도 “文정권 권력형 비리 폭로” 옹호 속 “멀리 총선 봐야” 신중론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당내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며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기류다.

지도부가 7일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예비후보들에 대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과 맞붙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강서구와 전혀 무관한 분을 좀 어이없게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서구민들의 심판 여론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김 전 구청장 재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제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YTN라디오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정정당

당하게 공천해서 강서구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개인 비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정의의 결과를

만든 사람”이라며 “그것이 비록 (보궐)선거를 만들었다 해도 특별사면을 통해 상당한 정치적 고려를 받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당의 방침이 아닐까 본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을에서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해서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구청장과) 억지준항식 ‘검·경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다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해 주면 이번 선거는 충분히 해 볼 만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김

태우 전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 “강서구민들과 약속했던 것을 제가 1년밖에 못했던 아쉬움이 크다”며 “약속을 지키면 오히려 총선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해 ‘보선 책임론’이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나. 없다”고 반박했다.

다면 당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 낙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도 당현·당규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후보를 내고, 특히 그 후보가 김 전 구청장이 되는 게 명분상 맞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도부의 한 인사는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약자’ 후보가 나온 건 맞지만, 우리가 보궐선거를 초래했기 때문에 길게 봐서 총선까지 생각하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며 “강서구청장 공천 결정으로 (선거) 판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점을 경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임영찬 기자

##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인정대상 확대…지원금도 최대 3천만원까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 역시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



당·정, 백신피해보상 협의회

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또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옥현 기자

## 알아서 챙겨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변동, 환율변동, 산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체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

## '430억 전세사기' 건축왕 "구속 풀어달라"...법원에 보석 신청

4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구치소에서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은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이 달 중순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여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려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A씨는 사기 외에도 추가로



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한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A씨 일당 35명 가운데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 권도훈 기자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頓호텔 대표 징역 1년 구형

참사 관련 재판 첫 변론종결  
11월 29일 선고



검찰이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頓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頓관광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이 구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와 범인은 해밀頓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2월 세로 21m, 폭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폐널 재질 담장(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가벽은 어여쁜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됐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브론즈 주점 운영자 안모(40)를 징했다.

/ 노진수 기자

씨와 호텔 별관 1층 라운지를 런프로스트 대표 박모(43) 씨에게는 징역 8개월씩을 구형했다.

호텔 뒷쪽 브론즈 주점과 런프로스트 앞에도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세계음식거리의 폭이 좁아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브론즈의 테라스를 직접 건축한 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생 차원에서 임차인의 증축을 묵인 했다"며 "가벽은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담장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해밀頓호텔 경영주 입장에서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앞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11월 29일 오전으로 잡혔다.

/ 노진수 기자

### 제주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담배 판 귀화자 검거



해경이 압수한 물품들

베트남 출신 귀화자가 제주에서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를 판매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어선 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베트남산 불법 낙태약과 담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1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

아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하고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낙태약과 담배 등 384점을 압수했다.

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최근 확산하는 SNS를 통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박민준 기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

단법석을 떨 일인가.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

### 징계시효 한달 앞 감찰 개시 朴 "구국의 지도자 몰라본 제 잘못"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차장검사)은 최근 이들 두 사람에게 해당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진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내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등을 고려해서 기소 전에도 감찰에 착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낸 이 전 검사장과 박 전 담당관 사건의 처리가 지체돼 징계시효 등을 고려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분에 대해 감찰 조사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이토록 막강한 권리로"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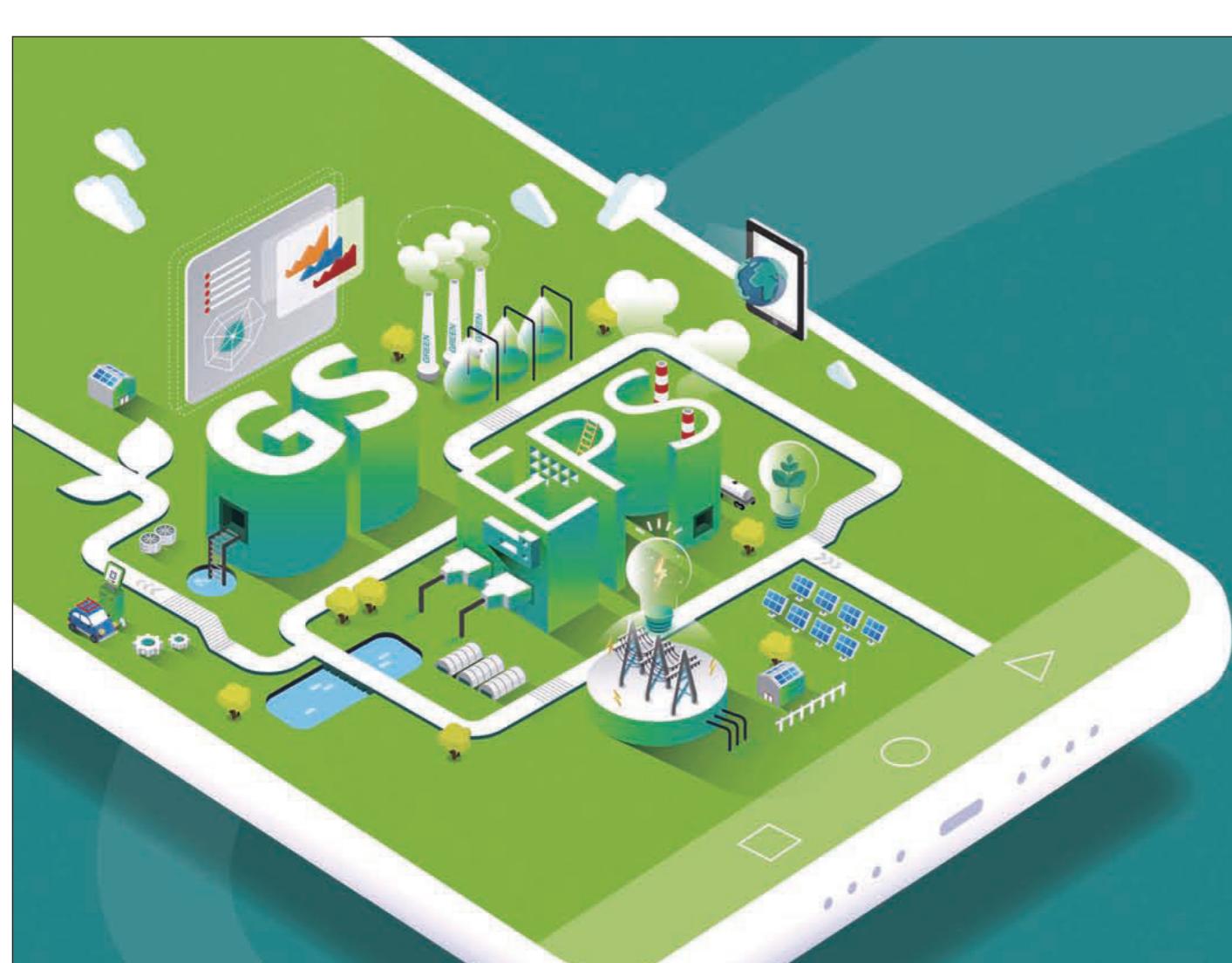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 던 유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전 담당관은 "윤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 일부를 공수처로 보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는 대로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최민호 기자



## Value No.1 Clean Energy Company for Better World

국내 최초의 민간발전회사 GS EPS  
스마트 발전소와 친환경 에너지로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듭니다.



www.gseps.com

# “시진핑, 지난달 원로 간언 듣고 격분…체면 고려해 G20 불참”

日닛케이 보도…“11월 미국서 열리는 APEC 참석도 불투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원로 그룹으로부터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간언을 듣고 측근들에게 “문제가 내 탓인가”라며 분노를 쏟아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장기 집권에 성공한 시 주석과 원로 그룹 사이의 이 같은 압력 다툼과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경제 문제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중국 지도부가 시 주석의 체면을 고려해 오는 9~10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2인자인 리창 총리를 보내기로 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원로 그룹은 사전 모임을 통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지도부에 전달할 의견을 모았고, 고(故)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측근이었던 쟁청훙 전 국가주석이 베이다이허 회의에 참석해 시 주석 면전에서 과거와는 다른 강한 어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 “더는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을 포함한 중국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여름 휴가철에 주요 현안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자리다. 장 전 주석이 지난해 11월 사망하고, 후진타오 전 주석은 작년 10월 이후 행적이 묵연해 시 주석

로서는 영향력이 매우 강한 원로 정치인이 없는 바람직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 주석은 원로 그룹의 예상치 못한 간언에 허를 찔렸고, 이에 측근들을 다른 장소에 소집한 뒤 “과거 3대가 남긴 문제가 모두 덮쳐왔다”며 “10년이나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게 내 탓인가”라고 격분해서 말했다.

그는 원로 그룹이 비판한 ‘혼란’은 명사 오펑, 장쩌민, 후진타오 체제를 거쳐오는 동안 축적된 부정적 유산이며, 자신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시 주석과 원로 그룹 사이에 불거진 갈등에 대해 닛케이는 “내정에 혼란의 조짐이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주석의 측근 집단은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면 체면을 구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인도는 중국과 관계가 깊끄러운 편이고, 공개석

상에서 부동산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흔들리는 중국 경제의 여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시 주석이 비즈니스 포럼에서 예정돼 있던 연설을 취소한 배경에도 돌발 질문이 나올 경우 체면이 깨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와중에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웃으며 회담하는 것도 부담이 됐다 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이러한 흐름에서는 11월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 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모스크바에서 프리고진 추모 공간 옆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 영국, 러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테러단체로 지정

영국 정부가 러시아 용병 단체인 바그너 그룹을 테러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앞서 영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아프리카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등이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으며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 고문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를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시리아와 리비아, 말리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2020년 미국은 바그너 용병들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주변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밝혔고, 지난 7월 영국은 바그너 그룹이 말리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앙아공)에서 처형과 고문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바그너 그룹은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 군부 지도자들을 겨냥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이후 의문의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 광도영 기자

## 미 LA서 한미 ‘우정의 밤’…한인 이민사 조명 다큐 상영회도

주LA총영사관, LA한국문화원 이달 잇달아 행사



평화의 사도 메달 전달 받는 한국전 참전용사 존 루소 씨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한미 우호 관계를 다지고 미국 한인 이민사를 돌아보는 행사가 이달 잇달아 열린다.

주LA총영사관(김영완 총영사)은 오는 7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 태평양제기 연구소(PCI) 및 ‘한국의 친구들’(Friends of Korea: FoK)과 함께 ‘2023 한미 우정

의 밤’(Korea-U.S. Friendship Night) 행사를 LA총영사 관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친한(親韓) 단체인 FoK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 파견된 미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중심으로 2002년 발족했으며, 한국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범

위를 넓혀 현재 미국 내 140개 단체, 5만 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번 ‘한미 우정의 밤’ 행사에서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평화봉사단이 그 동안 한국의 발전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기여해온 활동에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또 LA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이해 프로그램 ‘프로젝트 브리지’(Project Bridge) 수료생들을 초청해 차세대 친한 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다질 예정이다.

FoK은 2018년부터 ‘프로젝트 브리지’ 수료생들을 평생회원으로 가입시켜 한국과 교류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행사 참석자들은 과거 미 평화봉사단의 한국 활동을 담은 사진을 보고, 한국 전통문화 공연도 관람한다.

LA 한국문화원은 오는 22일 오후 7시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영화 상영회를 연다.

## 트럼프, 美공화 여론조사 1위 ‘파죽지세’…디샌티스 2위 ‘수성’

CNN 조사, 트럼프 지지율 52%…라마스와미 후보토론 후 1%→6%



보이고 있는 비백 라마스와미 후보가 6%, 팀 스콧 하원의원이 3% 지지율을 보였다.

첫 번째 토론에서 가장 공격적인 태도를 이어간 라마스와미 후보의 경우 지난 6월 조사에서 지지율 1%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6%로 지지율이 상승해 토론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43%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굳혔다고

CNN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 성향 응답자의 44%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그의 본선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어 루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8%의 지지를 얻어 1위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30%포인트 넘는 격차를 보였다.

다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

공화당 경선 후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WAJ)이 지난달 24~30 일 공화당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59%를 기록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지율이 13%포인트 하락, 13%에 불과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46%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대선 개입 혐의로 네 번째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법 리스크에 비례해 오히려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다만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따른 우려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NN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 성향 응답자의 44%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그의 본선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니키 해일리 전 유엔대사가 7%로 뒤를 이었고, 두각을

/ 곽정윤 기자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인 이민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하와이 연기’와 ‘무지개 나라의 유산’을 상영한다. 영화 연출자인 이진영 감독이 관객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정상원 LA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다큐 영화 상영회를 통해 관객들이 감동적인 이민사를 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사랑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백진혁 기자

이 예금은 해양수산부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공익상품입니다.

준법감시인필 제B230104호(2023.08.22. 기준)  
 유효기간 : 2023.08.22. ~ 2024.08.21.

# 바다가꿈 경기예금

지금 우리 바다와 어촌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다가꿈 정기예금으로  
바다 사랑을 실천해주세요!

**Sea & Love**

**예금 가입으로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예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조성을 위해 수협중앙회 부담으로 연 평잔 순증액의 0.0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기부처에 출연하는 거치식 예금입니다.

- 이 예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인당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인터넷뱅킹 [www.suhyup-bank.com](http://www.suhyup-bank.com) 고객지원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1515

**기본금리  
+0.2%  
[비대면 우대금리]**

**Sh 수협**

# 'K-방산 큰손' 폴란드와 후속지원 업무협약...유럽시장 판 키운다

폴란드 대통령 “내년 국방비로 GDP 4% 넘는 43조원 지출할 것”

국방부 공동취재단 박수윤 기자 = 유럽의 3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 꼽히는 'MSPO 2023'이 5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개막했다.

올해 31회째를 맞는 MSPO는 파리 유로사토리, 런던 DSEI 전시회 등과 함께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로 꼽힌다. MSPO는 주최국(host nation)과 주도국(lead nation) 제도를 두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참가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방산 강국들과 치열한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심 무기를 대거 선보이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지난해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은 폴란드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총 124억달러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했다. 이 중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지난해 초도불량이 성공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면서 실제 수출 실적에 반영됐다.

KAI 등은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사와 정비 유지 후속지원 등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기 수출은 한번의 수주와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무기의 기능과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금액은 수십 년간 최초 플랫폼 대비 최대 8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작년 1차 계약이 '유럽 지역 진출 확대'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의미였다면 이번 MSPO에선 내실을 다지게



KAI, 폴란드 방산 전시회 참가

된 셈이다.

강구영 KAI 대표는 "이번 PGZ와 업무 협약을 통해 FA-50의 장비 지원이나 군수 지원 등 후속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세巴斯찬 흐라웨 PGZ 회장은 "대한민국이 이번 전시회에 주도국으로 참가해 특별한 역할이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공유하는 폴란드와 방산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폴란드 당국은 추후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방산협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35개국 700개 이상의 방산 회사가 참여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에 우리는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4%가 넘는 1370억 즈워티(약 43조6천700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리우시 브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부총리는 "우리는 폴란드와 자유세계의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며 "2022년 우리는 대한민국과 대규모 협력을 시작했다"고도 말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자유, 인권, 평화 등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방산분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전시회 첫날 한국 무기 체계들과 30개 국내 방산업체에 솔리는 관심은 뜨거웠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KAI, LIG넥스원, 기아, 풍산 등 주요 방산업체는 단독 부스를 마련했으며 보성공업, 연합정밀, 팔월삼일 등 중소업체는 중소기업관에 자리를 잡았다.

야외 전시장엔 한국 방산의 상징인 K-2 흑표전차가 당당히 중심에 위치했으며 그 옆에 독일의 레오포르트 전차가,

오른편에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배치돼 한국 방산의 위상을 체감하게 했다. 전차들 옆으로는 한국의 K9-자주포도 전시됐다. 특히 KAI는 폴란드 공군에 투입될 FA-50GF 경전투기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모형을 전시했다.

강구영 KAI 회장은 "전 세계 전투기 가운데 FA-50의 가격 대비 성능과 가동률을 따더라도 비행기가 없다"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로 세계에 KF-21의 가치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의 한화오션은 3천t급 잠수함인 '장보고-III 배치(Batch)-II' 모형을 전시해 해양 방산 시장을 공략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부스를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잠수함과 위성 체계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폴란드는 최근 중단됐던 잠수함 프로젝트인 '오르카 사업'을 재개한 상태다.

LIG넥스원은 항공탑재유도무기인 KGGB(한국형 GPS 유도폭탄)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현궁·신궁 등 지상 유도무기, 드론 제품을 맹리했다. 기아는 미국의 고기동 다목적 차량 험비와 유사한 개념인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을 선보였다.

최병로 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K-방산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협력과 국방수요 창출에 기여하려면 정부가 전시회 참가지원 국고보조금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아찬 기자

정부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기준 '매월 첫 주 1회'에서 '매주 목요일 2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9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은 전국 741개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내 9천 300여개 가맹점,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만원권, 5만원권, 20만원권 세 종류로 발행되며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최 실장은 "비플제로페이 앱에서 원하는 금액대의 상품권을 선택하면 결제할 때 20%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며 "1명당 매달 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사용기한은 구매 후 2개월이나, 추석을 앞두고 9월에 발행하는 상품권만 10월 13일까지로 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올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이 기준 640억원에 예비비 800억원이 추가돼 1천4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는 할인행사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까지 일본 도쿄전력의 공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4일 방출 지점으로부터 3km 이내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노승진 기자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설명

## 정부 “수산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매주 목요일 2회 발행”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 WAVE

**We Do Energy Technology**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OC\* 멤버 가입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SO 9001 인증 획득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밸자국 인증 획득  
반도체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 다양성 경연 개최

\*SO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은 반도체 기기 사용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경량화·온도 저하·전력 효율화·재활용·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협력 플랫폼입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 ‘캠핑축제’…8~10일 새만금서 오토·레저캠핑쇼

전북 최대 규모의 캠핑·레저 박람회인 '2023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가 8~1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된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박람회에는 캠핑카, 캠핑용품, 낚시용품 등 관련 50개 업체가 다양한 캠핑용품부터 캠핑카, 카라반, 해양레저 및 낚시용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고군산군도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맞춰 레저카야, 카누, 낚시 보트 등 해양 레저 산업의 품목군이 참가했다.

부대행사로 보고 먹고 즐기는 'ALL 페스티벌'이 열려 낚타 및 댄스공연과 더불어 군산 수제 맥주 및 푸드트럭 등 먹거리 제공한다. 또 지역 공예인들이 참여하는 수공예 팝업스토어&스토리체험전, 무선 조종 자동차(RC카) 체험, 레이저테크 스포츠 서바이벌 체험행사, 추억의 보물찾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결

들이진다.

새만금오토&레저캠핑쇼 홈페이지 ([auto-cam.co.kr](http://auto-cam.co.kr))에서 온라인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할 수 있다. 이 기간 군산문화



낚시박람회

도시센터는 '문화도시 속 지속 가능한 여가문화'라는 주제로 포럼도 열린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캠핑, 해양레저, 낚시 등 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숙 기자

## 문체부·관광공사, 中칭다오 MICE 로드쇼…중대형 단체관광 공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5일 중국 칭다오해천호텔에서 '2023 칭다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된 이후 처음 열리는 중국 내 대형 MICE 행사다. 중국은 팬데믹 이전 기업회의·인

센티브 관광으로 약 10만명이 한국을 찾은 MICE 핵심 시장이었다.

칭다오가 속한 산둥성은 한국과 거리가 가깝고 한국 주요 도시를 운행하는 다수의 항공편 및 페리 노선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고객 기업군의 본사 다수가 산둥성에 소재하고 있기도 하다.

관광공사는 메인행사인 비즈니스 상담

회와 MICE 설명회를 통해 현지 관계자와 세일즈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지역관광공사(RTO), 여행사, 코리아유니크비뉴(KUV) 등 약 20개 기관 및 업체에서 50여명이 참가, 현지 관계자 150여명과 380건 이상의 미팅을 진행했다.

관광공사는 팬데믹 이전 대규모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기업체와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한국 재방문 환영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원계획을 논의하는 등 500명 이상의 중대형 단체 유치 활동에 특별히 힘을 쏟았다.

서영총 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관광공사 칭다오사무소는 2019년 중국 산둥성에 소재한 주요 여행사와 협력해 중국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약 3만7천 명을 유치한 바 있다"며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방한단체 입장이 약 6년 만에 허용된 것은 양국 관계에 반기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 서울 어린이집 급식, 학교 수준으로…품질·안전 통합관리

## 민간위탁 대신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일원화해 가격 평차 줄여

서울시가 어린이집 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학교 급식 수준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유치원과 동일하게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 체계를 개편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재료를 유통해 유치원·학교 수준 약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공급망도 특정 산지의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서 전국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

시는 6일 공공급식 체계 개편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 공적인 관리하에 한곳으로 모아 공급하는 공적집하 공급체계로 전환

▲ 전국 친환경 농가에 공급 기회 부여 ▲ 품질 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3가지 방향이다.

시는 2017년 서울 자치구와 식재료 산지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1:1로 연결해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시작했다.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했다.

그러나 국회나 시의회 등은 운영상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공공급식센터가 여려 곳으로 나뉘어 운영돼 센터 견립이나 운영 등에서 비효율이 생긴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급식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654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공급식 체계개편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는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센터 운영비로 379억원, 센터 건립비로 80억원이 쓰였다.

또 자치구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식재료 품질에 편차가 생기고 공급 품목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공공급식 체계 개편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전국 친환경 농가에는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에 앞서 식재료 산지와 자치구, 어린이집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시는 12개 자치구에서 운영된 총 8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곳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가격 편차가 해소되고 균등한 품질로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 자치구와 매칭된 지역의 1천162개

농가만이 참여하던 식재료 공급을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확대해 다양성을 제고한다. 다만 지금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산지 농가 보호를 위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다.

이처럼 농산물 공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친환경유통센터는 김치·소시지 등 가공식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가공식품은 각 어린이집에서 구매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에는 가공식품 공급마저 수탁업체가 도맡았다"며 "어린이집에서 가격 비교 등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고, 서울 소상공인들에게서도 '가공식품까지 무조건 수탁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하느냐'며 원성이 자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의 오염수 방류나 집단 식중

독 발생 등으로 식자재 안전 우려가 커진 만큼 식재료 안전기준과 식품안전체계도 강화한다. 공공급식센터가 해온 표본검사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전담해 생산자별·품목별 전수검사를 한다.

잔류농약, 방사능 등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검사 횟수도 늘린다. 기존 표본검사는 주당 60건씩 진행됐지만 향후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주당 670~720건 기량 검사한다.

특히 방사능의 경우 정부인증 전문기관·수산물 납품업체·친환경유통센터·보건환경연구원 총 4곳이 검사하는 '4중 방사능 안전망'을 거쳐 납품이 이뤄지도록 한다.

시는 식품 안전성 등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개편된 공공급식 체계가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조성하는 게 목표다.

또 향후 친환경 급식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집 급식 참여 자치구를 현재 12개에서 전체 구로, 시설 참여율은 65%에서 80%까지 조각 늘릴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민간 단체를 통한 위탁운영과 사업비로 600억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품질, 가격,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됐다"며 "개편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고 친환경 농가의 판로는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홍명석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경기교육청, 9.4 추모 연가 교사에 소명 요구…“책임 강조 취지”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

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다.

도 교육청 공문에 일부 교사는 연가·병가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

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

에게서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

성을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도 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

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

로 했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을 멈춘 데

대한 교사의 책임 부분과 못한 수업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도 밝혔다시피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를 징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

다"라고 말했다.

/ 한은정 기자

## 부산 시민단체들 “21대 정기국회서 산업은행법 개정해야”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지역 균형발전에 필수 과제”



주요 의제고 가치인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산업은행법 개정에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야당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동남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을 국제금융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부산은 대표적인 항만도시이자 물류 중심지로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강점이 있어 부산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 중심지 정책으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산업은행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정치적 셈법 때문에 현실은 녹록하지 못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5일 산업은행법 개정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산업은행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민주당의

/ 이용준 기자

## 그때처럼 지금도 교보생명의 꿈은 계속됩니다

밥은 굽어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을 만들었고

‘교육이 민족의 미래’라는 신념이

오늘날의 교보문고를 있게 했듯

교보생명이 걸어온 지난 65년의 역사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꿈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KYOBO 교보생명

## 철도노조 “SRT 노선 확대로 호남선 주말 좌석 감소”

호남 지역 철도노조가 6일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SRT 확대 운영으로 호남선 SRT의 주말 좌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는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SRT 3편성을 확대 운행하며 주중 경부선 SRT 운행 열차 축소만 발표했다"며 "그러나 추가로 호남선에서도 주말 SRT 중편(2대를 연결해 운행) 열차의 축소 운행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말에 2대를 연결해 운행하던 것을 1대로 줄여(단편성) 그만큼 호남선 SRT의 주말 좌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고속열차 운행 편성이 적어 특히 주말에 예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좌석이 줄었다"며 "고속열차 증편 요구를 해온 광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7일 오전 11시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 권현준 기자



노조는 "고속열차 운행 편성이 적어 특히 주말에 예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좌석이 줄었다"며 "고속열차 증편 요구를 해온 광주시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7일 오전 11시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 “JDC 전직 간부 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 의혹”

경실련 기자회견…당사자 “부지조성 공사 끝난 뒤 매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직 고위 간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 전 고위직 A씨가 10년 전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로 10여 배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제주경실련은 “실제 2013년 9월 제주도와 JDC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해외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협약을 체결해 발표하기 전 당시 JDC 관광사업처장이었던 A씨가 아내와 처남을 동원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대도로변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A씨는 당시 신화역사공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 전직 간부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 부지에 대한 투자 내부 정보를 누구보다 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현재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실제 A씨 부인 등 명의로 매입한 토지는 수십 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감사원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코레일톡 ‘승차권 확인’ 메뉴에서 정기·자유석 승차권을 선택해 셀프체크를 누른 뒤 자동 실행되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된다.

코레일은 이달 중 KTX 열차 자유석 객차 1칸(KTX 18호차, KTX-산천 8호차, KTX-이음 6호차)의 모든 좌석에 QR코드를 부착할 방침이다.

시범운영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KTX 17호차와 ITX-새마을을 자유석까지 셀프체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뒤 휴

처남은 같은 날 1필지 240㎡를 4천 여만 원에 각각 매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주경실련 주장과 달리 토지 매입 당시 JDC 관광사업처장이 아닌 개발사업처장이었다”며 “또 토지를 매입한 시점보다 앞선 2012년에 이미 신화역사공원 기본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는 끝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더욱이 부지조성 공사가 끝난 시점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주장은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며 “혹시 몰라 감사실에도 두차례나 물어보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땅을 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 거주 목적으로 보전관리지역인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덧붙였다.

/ 박성호 기자



면세점 찾은 유커

## 웰니스부터 뷰티까지

### 유커 1만5천명 인천 기획유치 시동

내년에 중국 기업 임직원 단체관광객 1

만명을 유치한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특정 테마를 살린 기획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백현 사장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국 산동성을 방문해 현지 여행사 등과 유커(중국인관광객) 1만5천명 기획유치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중국 당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에 따라 항공편보다 저렴한 배편으로 인천을 찾는 단체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정기 카페리가 운항하는 산동성 칭다오시와 웨이하이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공사는 인천과 산동성 사이의 140년 우호협력 테마를 활용한 한중 실버문화 건강교류, 1883 인천맥강파티, 축제, 뷰티, 웰니스(wellness·종합적 건강) 등 유커들

이 선호하는 테마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웨이하이·칭다오 현지 여행사들과 국내 여행업체, 인천시 공동 화장품 브랜드인 어울화장품 등을 공동으로 관광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중국 여우더(優德) 그룹과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두 4만명의 임직원이 인천에서 열리는 포상관광에 참가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여우더 그룹 임직원 1만명의 인천 단체관광이 이뤄지면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본격화한 2017년 이후 단일 규모 유커로는 최대 인원이 될 전망이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천은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을 갖추고 있어 선박으로 인천을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홍유진 기자

## 코레일, KTX 자유석 검표 ‘셀프체크’ 시범 운영

### 코레일톡으로 좌석 QR코드 인식

다음 달부터 고속철도(KTX) 자유석 이용자 스스로 검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KTX 이용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KTX 자유석 승객이 스스로 검표하는 ‘셀프체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고객이 직접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자유석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KTX 자유석 검표 작업은 승무원이 자유석 칸 승객 모두를 대상으로 일일이 승차권을 확인해왔다. 이에 따라 열차 내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검표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화를 바꾼 경우, 오는 20일부터는 코레일톡 승차권 확인 메뉴에서 고객이 직접 ‘새로고침’만 누르면 승차권을 확인할 수 있다.

/ 민호철 기자

##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인천시, 방사능 검사 강화



조사를 해왔다.

또 지난달 3일 수도권에 공급되는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인천 연안부두에 현장검사를 열었다.

시는 소래포구 전통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시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보유 중인 방사능 분석장비 3대를 모두 수산물 방사능 분석용으로 운용하고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안을 덜고 상인들이 정상 영업하도록 선제적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희준 기자



###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합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 전북 체불임금 266억원…노동부, 추석 앞두고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까지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 수는 모두 4천819명으로, 금액은 266억9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체불 근로자 수는 110명 늘고 체불 금액은 17억원 감소한 수치다.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건설업 중심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27일까지 건설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밀린 임금 집행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임금체불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송현수 기자

##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1천83명 지원…이 중 973명은 짐 싼다

KBO 신인드래프트 14일 오후 2시 개최…10개 구단이 최대 110명 지원

올해 프로야구 높은 벽에 도전하는 고교·대학 및 아마추어 선수들은 총 1천83명이다. 이중 최대 110명만이 KBO리그에 입성하고, 나머지 973명은 고개를 떨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2024 KBO 신인드래프트 일정과 개요, 지원자 수 등 정보를 공개했다.

프로야구 샛별들이 탄생하는 올해 신인드래프트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10개 구단은 전면 드래프트 방식으로 1라운드부터 11라운드까지 지명하며, 지명은 2023년도 순위 역순(한화 이글스-두산 베어스-롯데 자이언츠-삼성 라이온즈-NC 다이노스-KIA 타이거즈-kt wiz-LG 트윈스-키움 히어로즈-SSG 랜더스)으로 이뤄진다.



2022년 9월에 열린 2023 KBO 신인 드래프트 모습

키움은 트레이드를 통해 얻은 LG의 1라운드 지명권, KIA의 2라운드 지명권, 삼성의 3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한다. NC 역시 한화의 7라운드 지명권을 가져간다. 전 구단이 모든 지명권을 행사하면 키움은 14명, NC는 12명, LG, KIA, 삼성, 한

화는 10명, 그 외 구단들은 11명의 선수를 지명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얼리드래프트 제도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3, 4년제 대학교 2학년 선수들도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교 졸

업 예정자 782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96명(얼리드래프트 41명 포함),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5명 등 총 1천83명이며 이중 최대 110명이 KBO리그에 입성하게 된다. 지명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엔 1천165명, 2년 전엔 1천16명이 지원했다.

야구 선수의 꿈을 접고 사회로 밀려나는 선수들의 수�자도 매년 900~1천 명 수준이다.

환희와 좌절이 교차하는 신인드래프트 현장은 팬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원하는 팬은 6일 정오까지 KBO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권을 신청하면 된다. KBO는 추첨을 통해 총 100명(50명 추첨, 1인 2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강인석 기자

## 웨일스전 이틀 앞으로…클린스만호 첫 ‘완전체 훈련’



축구대표팀의 수비수 김민재

9월 A매치 2연전의 첫 상대인 웨일스와 대결을 이틀 앞두고 클린스만호 태극 전사들이 모두 모여 첫 완전체 훈련을 했다.

대한축구협회가 6일 공개한 축구 대표팀 훈련 동영상에 보면 25명의 태극전사는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 인터내셔널 스포츠 캠퍼스에 모여 본격적으로 이달 A매치 2연전(한국시간

8일 웨일스·13일 사우디아라비아) 대비에 나섰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번 두 차례 A매치에서 ‘클린스만호 마수걸이 승리’에 도전한다.

클린스만호는 3월 2연전(우루과이 1-2 패·콜롬비아 2-2 무)과 6월 2연전(엘살바도르 1-1 무·페루 0-1 패)까지 4차례 경기에서 2무 2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

다.

외국인 지도자가 대표팀을 맡은 이후 4경기째 승리가 없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이다.

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팬들은 국내에 머물기보다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클린스만 감독의 ‘근태 상황’에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결국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화끈한 승리뿐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을 지휘한 파울루 벤투 감독도 역시 부임 이후 월드컵 직전까지 ‘빌드업 축구’를 놓고 언론과 팬들로부터 ‘고집불통’이라는 혹평을 받아야만 했다.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1무 1패에 그쳐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꺾고 조 2위로 16강 났다. 상대 전적에서는 2003년 딱 한 번 만나 0-0으로 비긴 바 있다. 이번이 20년 만이자 두 번째 맞대결이다.

웨일스 대표팀에는 국내 팬들에게도 낯익은 선수들이 많다.

/ 이성준 기자

클린스만 감독 역시 디를 바 없다. 태극전사의 지휘자 역할을 맡고 2무 2패에 그쳤지만, 9월 A매치 2연전에서 승리를 따낸다면 ‘기다림’을 달가워하지 않는 여론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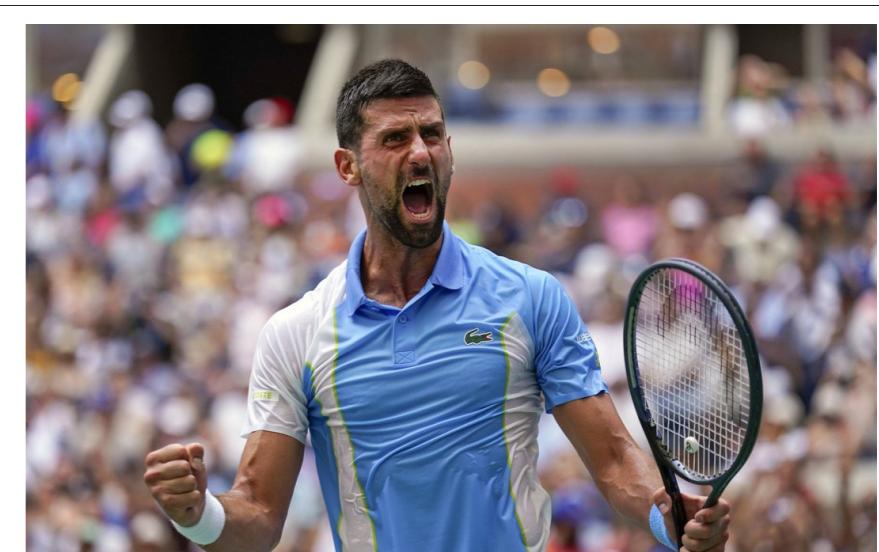
클린스만호는 이달 A매치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내적 변신도 시도했다.

벤투호 시절부터 대표팀에 있었던 마이클 김 코치와 결별하고 클린스만호의 어드バイ저 역할을 맡아왔던 차두리를 코치로 합류시켰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선수들의 ‘큰형’ 이미지인 차두리 코치가 합류하면서 클린스만 감독과 태극전사들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클린스만호가 한국시간 8일 오전 3시 45분 상대할 웨일스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5위로 한국(28위)보다 조금 낫다. 상대 전적에서는 2003년 딱 한 번 만나 0-0으로 비긴 바 있다. 이번이 20년 만이자 두 번째 맞대결이다.

/ 이성준 기자



환호하는 조코비치

## 조코비치, US오픈 준결승행 메이저 통산 47번째 4강 ‘신기록’

노박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6천500만 달러·약 857억6천만원) 남자 단식 4강에 진출했다.

조코비치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킨경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9일째 남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테일러 프리츠(9위·미국)를 3-0(6-1 6-4 6-4)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에서 통산 47번째 4강에 진출했다.

이는 로저 페더러(은퇴·스위스)가 갖고 있던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4강 진출 기록(46회)을 뛰어넘은 것이다.

조코비치는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23회)도 갖고 있으며, 결승 진출 역시 35회로 1위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우승 2위는 22회의 라파엘 나달(139위·스페인)이고, 결승 진출 2위 기록은 31회의 페더러가 갖고 있다.

이 대회 결과와 관계 없이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1위에 복귀하는 조코비치는 4강에서 프랑스 티아포(10위)-벤 셀턴(47위·이상 미국) 경기 승자를 상대한다.

조코비치는 이날 승리로 US오픈 8강 성적 13전 전승, 프리츠 상대 전적 8전 전승 행진도 이어갔다.

또 프리츠를 포함한 미국 선수를 상대로도 30연승을 달성했다.

조코비치가 미국 선수에게 패한 최근 사례는 2016년 월블던 3회전에서 샘 케리에게 진 것이다.

4강에서 또 미국 선수를 만나게 되는 조코비치는 “이 경기장의 좋은 에너지를 통해 내 경기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다”며 “이 코트에서 기억에 남을 경기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 다음 경기도 빨리 치르고 싶다”고 의욕을 내보였다.

낮 경기로 진행된 조코비치와 프리츠의 8강전은 기온이 32도 이상 오르는 더운 날씨 속에 치러졌다.

공격 성공 횟수에서는 프리츠가 33-25로 앞섰지만, 실책을 51개나 쏟아내 조코비치(26개)의 2배나 된 것이 패인이 됐다.

올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하고, 월블던에서 준우승한 조코비치는 US오픈에서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조코비치는 지난해 US오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다.

조코비치가 이 대회 결승에 진출하면 2021년 이후 2년 만에 4대 메이저 대회 결승에 모두 오르게 된다.

2021년에는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월블던을 차례로 제패했고 US오픈은 결승에서 패했다.

/ 최준용 기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함께  
웃어요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땅끝 섬마을에서도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 세븐틴, 오늘부터 일본 돈 투어 51만명 동원 자체 최대 규모

그룹 세븐틴이 6일부터 일본 5개 도시 돈 공연장을 도는 자체 최대 규모의 돈 투어 '세븐틴 투어 팔로우 투 재팬'(SEVENTEEN TOUR FOLLOW TO JAPAN)을 연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세븐틴은 6~7일 도쿄 돈을 시작으로 11월 23~24일 사이타마 베루나 돈, 11월 30일·12월 2~3일 반테린 돈 나고야, 12월 7·9~10일 교세라 돈 오사카, 12월 16~17일 후쿠오카 페리페리 돈에서 총 12회에 걸쳐 공연을 펼친다.

이들은 이로써 51만5천명의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플레디스는 "투어명 '팔로우'에는 태

양이 된 세븐틴이 캐럿(세븐틴 팬)과 '팀 세븐틴'(TEAM SVT)으로 뭉쳐 더 밝고 넓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며 "세븐틴은 이번 공연으로 팀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며 공연 장인다운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세븐틴은 첫 일본 베스트 음반 '올웨이즈 유어스'(ALWAYS YOURS)를 발매 첫 주에 50만장 이상 판매하는 등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작 'FML'에 이어 일본에서 해외 가수로는 처음으로 2개 작품 연속 첫 주 판매량 50만장을 넘겼다.

/ 이은정 기자



## 11년 만에 돌아온 '가문의 영광' “젊은 세대 감성 저격”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셔서 크게 한바탕 웃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김수미)

2000년대 대표 코미디 프랜차이즈 '가문의 영광' 시리즈가 11년 만에 돌아왔다.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 주연을 맡은 배우 김수미는 5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극장가가 뜸한데 정태원 감독과 '가문의 영광' 시리즈를 한번 해보자

고 의견이 맞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개봉하는 '가문의 영광: 리턴즈'는 '가문의 영광' 시리즈의 여섯번째 작품이다. 전작 '가문의 귀환'은 2012년에 개봉했다.

막내딸 진경(유라 분)을 유명 작가인 대서(윤현민)와 결혼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장씨 가문의 작전을 그린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가문의 수난'(2011)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김수미,

탁재훈, 정준하가 그대로 출연한다.

김수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가문의 명성을 이어온 장씨 가문의 리더 흥덕자를 연기한다. 비혼주의를 선언한 막내딸 진경을 대시와 결혼시키기 위해 작전을 짜고 실행에 옮긴다.

김수미는 "흥덕자는 이제 조폭 생활을 접고 골프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폭 피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막내딸의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고 귀띔했다.

탁재훈은 장씨 가문의 든든한 아들 장석재 역으로 호흡을 맞춘다.

그는 "작품성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으러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예전의 웃음 포인트와 요즘 웃음 포인트는 다르다 보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코미디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전 '가문의 영광' 시리즈 작품들에는 느리고 인위적인 장면이 많았다면, 이번 작품은 젊은 세대의 취향을 고려해서 흐름이 훨씬 빨라졌어요." (탁재훈)

/ 오창민 기자

DKZ 재찬, 오늘 솔로 데뷔  
앨범…전곡 자작곡으로 채워



몽골을 사목 방문한 교황 집전 미사 폐막 행사에서 열창하는 팝페라 테너 임형주

## 임형주, 몽골서 교황 특별 알현 앞에서 '아베 마리아' 열창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몽골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알현하고, 그 앞에서 '아베 마리아'를 열창했다.

6일

소속사 디지엔콤에 따르면 임형주는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께(이하 현지 시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몽골주교관 '비숍의 집'(Bishop's House)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알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교황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자신의 성가음반 '마지막 고해'(The Last Confession)를 전달했다.

교황은 이에 환한 미소와 함께 노래를 요청한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칸타레!'(Cantare!)라고 말했고, 임형주는 즉석에서 카지니의 '아베 마리아' 1절을 무반주로 불렀다.

교황은 임형주의 노래를 듣고서 악수를 청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특별 알현은 몽골 장관과 각국 대사 등 주요 인사 가운데 가톨릭과 관련된 인물을 선별해 극소수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형주는 교황의 첫 몽골 사목 방문을

/ 채희진 기자

##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http://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h point



## 올해로 6년째, 가장 행복한 멤버십

머물수록 쌓이는 즐거움, 현대백화점그룹 h point

### 올해의 브랜드 대상 멤버십 부문 6년 연속 수상

주최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 주관 한국소비자포럼·한국경제신문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푸른 바다가 활짝 웃는 기술

LG의 클린테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해양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다양한 기술로  
내일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